

## <수능완성 고전소설 주요 작품 목록>

| 영역       | 작품   | 수록 |
|----------|------|----|
| 고전<br>시가 | 탄궁가  | ○  |
|          | 면양정가 | ○  |
|          | 사우가  | ○  |

- 중요 작품 목록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영역부터 중요도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 본 자료는 고1, 2, 3 학력평가 및 역대 수능특강, 수능완성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험생 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최근 평가원 문제는 배제하였습니다.

- 작품 목록에 포함된 작품들은 본 자료 수록 여부와 관계없이 '2022 EBS 수능완성'에서 찾아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본 자료는 수능완성 고전시가 주요작품 문제지로 '탄궁가, 면양정가, 사우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김현중 수능국어' 자료를 2차 가공하여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년 고1 9월 - 탄궁가]

(가)

우는 것이 빠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나락들락  
 至지菑國忿恚 至지菑國忿恚 於어思사臥와\*  
 맑고 깊은 연못 속에 온갖 고기 뛰노는구나

세상 밖의 깨끗한 일이 어부 생애 아니겠느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어옹(漁翁)을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있더라  
 至지菑國忿恚 至지菑國忿恚 於어思사臥와  
 사계절 흥이 한가지나 추강(秋江)이 으뜸이라

간밤의 눈 갠 후에 경물(景物)이 달라졌구나  
 이어라 이어라  
 앞에는 만경유리(萬頃琉璃)\* 뒤에는 천첩옥산(千疊玉山)\*  
 至지菑國忿恚 至지菑國忿恚 於어思사臥와  
 선계(仙界)인가 불계(佛界)인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이어라 이어라: (노를) 저어라 저어라.
- \* 至지菑國忿恚 至지菑國忿恚 於어思사臥와: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
- \* 만경유리(萬頃琉璃): 유리처럼 맑고 아름다운 바다를 이르는 말.
- \* 천첩옥산(千疊玉山):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

(나)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하게 고루 하련만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고  
 삼순구식(三旬九食)을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한 갓을 쓰거나 못 쓰거나  
 안연\*의 공간이 비었다고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  
 봄날이 깊어져 빠꾸기가 재촉커늘  
 동쪽 이웃집에 쟁기 얻고 서쪽 집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피 조팔은 서너 되 안 되거늘  
 춥고 배고픈 식구 이리하여 어찌 살리

<중략>

이 원수 이 가난 귀신을 어찌해야 여의겠나  
 술에 음식을 갖추어서 이름 불러 전송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 하여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서 뉘 말 듣고 가라고 말하는가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꾸짖거늘  
 도리어 생각하니 네 말이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너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나니  
 [A] 일부러 피하여서 잔피로 여의겠나  
 하늘이 준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찌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수니 서러워하여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안연, 원헌: 공자의 제자로 청빈한 인물들.

(다)

커다란 바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나는 하늘이 낳아 주어 땅 위에 살고 있네. 밥그릇을 얹어 놓은 것처럼 안정되고 뿌리박은 듯 탄탄하여 무엇이 부딪쳐도 굴러가지 않고, 사람이 밀어도 움직이지 않지. 이렇게 내 본성을 지키며 생긴 그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니 참으로 즐겁다네. 자네도 하늘이 내려 준 생명을 받아 사람이 되었지. 그런데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다면서 어째서 제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만물에 얽매여 남이 떠미는 대로 움직이는 건가? 때로 무엇이 유혹하면 거기 빠져 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때로 무언가 기다린 대로 오지 않으면 몹시 슬퍼하며 얼굴을 펴지 못하지. 또 남이 옳다고 여겨 주면 기가 살았다가 남이 배척하면 곧 움츠러들지 않나. 자신의 참된 모습도 잃어버리고 지조 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사람만한 게 또 어디 있겠나? 만물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다는 것이 어찌면 이런가?”

나는 웃으며 이렇게 응수했다.

“너라는 존재는 어디서 생겨난 건지 아나? 불경(佛經)에서는 이렇게 말했지. ‘우둔하고 어리석은 정신이 변화하여 나무와 돌이 된다’고. 그렇다면 너는 이미 신령스럽고 총명한 기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돌덩이가 된 것이지. 더구나 너는 옛날에 귀한 옥을 감싸고 있다가 그 옥을 꺼내려는 사람 손에 찍 갈라졌고, 옥이 많이 난다는 곤륜산에 불이 났을 때 옥과 함께 불타오른 적도 있지. 또 내가 만일 용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너는 반드시 디딤돌이 되어 내 발에 밟힐 것이고, 내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너는 당연히 나를 위해 비석이 되느라 깎여 손상되겠지. 이게 바로 남 때문에 움직이고 본성을 해치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서 도리어 나를 비웃을 수 있겠나?”

나는 안으로는 참된 것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는 만물에 대한 집착을 비웠다네. 그래서 혹시 나 아닌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 해도 마음까지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고, 누가 나를 떠민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불만을 갖지 않네. 상황이 닥쳐오면 행동하고, 불러 주면 간다네.

[B] 갈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추니, 좋을 것도 안 될 것도 없는 것이지. 자네는 빈 배를 본 적이 없나? 우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때 빈 배가 떠내려와 부딪치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지. 그렇지만 거기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모두들 비키라고 소리치고 욕하지 않았겠나. 나는 바로 그 빈 배를 닮은 사람일세. 그런데 자넨 어째서 나를 꾸짖어 대는 건가?”

그러자 바위는 부끄러워하며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답석문(答石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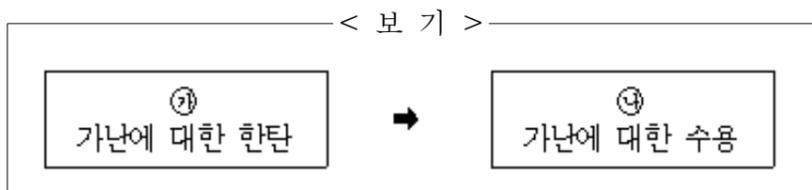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실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 담겨 있다.
- ④ (가)~(다)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 있다.
- ⑤ (가)~(다)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자세가 나타나 있다.

2. (가)를 국악 뮤지컬로 공연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 배경을 준비해야겠군.
- ② 주인공이 어부로서 자신의 직업의식을 드러내는 독창이 필요하겠군.
- ③ 배 띄우는 장면이나 노 젓는 장면에서는 코러스가 뱃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겠군.
- ④ 무대 효과를 사용하여 안개가 껴서 신비롭게 보이는 어촌의 풍경을 보여줘야겠군.
- ⑤ 탈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운 느낌의 음악이 필요하겠군.

3. (나)의 사상 전개를 <보기>와 같이 그릴 경우,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빈곤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에서는 고사 속의 인물을 이용하여 빈곤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빈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에서는 무력함을 꾸짖는 ‘가난 귀신’을 원망하고 있다.
- ⑤ ㉠에서 ㉡로 변화한 것은 ‘가난 귀신’과의 대화 때문이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과장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상대의 말을 수긍하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규칙적인 음보 배열로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대조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본성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언제나 변함없는 바위의 모습을 닮고 싶어한다. 이규보는 이 작품을 통해 바위도 변함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① ‘바위’와 ‘나’의 관점을 대비시키면서 ‘바위’의 삶을 긍정하고 있다.
- ② ‘바위’의 말을 ‘나’가 반박함으로써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바위’와 ‘나’와의 비교를 통해 안정된 삶이 가치 있는 삶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바위’와 ‘나’의 대화를 통해 물질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⑤ ‘바위’는 기존의 인식을, ‘나’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고정관념을 뒤집고 있다.

##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년 고2 9월 - 탄궁가]

(가)

이 원수(怨讐)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희려뇨  
 수래 후량(餽糧)\*을 갖추오고 이름 불러 전송(餞送)하야  
 일길신량(日吉辰良)\*에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추추분분(啾啾憤憤)\*하야 원노(怨怒)하야 니른 말이  
 ㉠자소지로(自少至老)\*히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로 함께  
 하야

죽거나 살거나 녀힐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나라나노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험박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無情)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호자 유신(有信)하야 나를 아니 버리거늘  
 인위(人威)로 피절(避絕)\* 하여 좀피로 여힐러나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分)이어나니 설워 **므슴하리**

- 정훈, 「탄궁가(歎窮歌)」 -

\*후량(餽糧): 좋은 음식

\*일길신량(日吉辰良): 길한 날

\*추추분분(啾啾憤憤):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냄

\*자소지로(自少至老):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피절(避絕): 파하여 관계를 끊음

(나)

世愛牧丹紅 세상에선 모두들 붉은 모란꽃만 사랑하여  
 栽培滿院中 정원에 가득히 심고 가꾸었네  
 誰知荒草野 누가 이 거친 초야에  
 亦有好花叢 **좋은 꽃**떨기 있는 줄 알기나 하라  
 色透村塘月 예쁜 모습은 연못 속의 달을 꿰뚫었고  
 香傳壟樹風 향기는 밭두렁 나무의 바람에 전하네  
 地偏公子少 **외진 땅**에 있노라니 찾아주는 귀공자 적어  
 嬌態屬田翁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에게 붙이누나

- 정습명, 「석죽화(石竹花)」 -

(다)

윤상군(尹相君)이 처음에 곤강(坤岡) 남쪽에 집터를 마련하  
 였다. 집터 동서편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그곳에 가옥을  
 건축하고 명칭을 울정(栗亭)이라 하였다. 지금은 또 조금 서  
 편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하였  
 다. 윤공은 집터를 구할 때마다 오직 밤나무 있는 곳을 선  
 택하였다.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봄에는 가지가 영성하  
 여 가지 사이로 꽃이 서로 비치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늘에서 놀 수가 있으며, 가을에는 밤이 맛이 들어 내가  
 먹을 수 있으며, 겨울이면 껍질을 모아 아궁이에 불을 땀다.  
 ㉢나는 이러므로 밤나무를 좋아한다.” 하였다. 나는 말하  
 기를, “불은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은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성격이 같은 것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이니 이치에 있

어서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그 숭상하는 것이 같으면 물건  
 이나 내가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찌  
 서 그러냐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풀이나 나무가 나는 것은  
 모두 한 기운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뿌리·싹·꽃·  
 열매가 어려운 것, 쉬운 것, 일찍 되는 것, 늦게 되는 것 등  
 일정하지 않은데, 다만 이 밤은 모든 물건보다 가장 늦게  
 나는 것이며, 그것을 재배하기도 매우 어렵고 장구한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자라기만 하면 쉽게 튼튼해지며, 잎이 매  
 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준다.  
 ㉣꽃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왕성하며, 열매가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곧 수확할 수 있다. 이  
 는 물건으로 이지러지면 차게되고 부족하면 보태지는 이치  
 가 있기 때문이다. 윤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  
 데 그 때의 나이가 30여 세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들 늦었다고 하였으나, 공은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  
 실히 하였다. 그러다가 임금께서 먼저 공을 알아보시고 크  
 게 쓰이게 되어서는 하루 동안에 아홉 번씩 승진하여 대신  
 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  
 는데도 무성하게 뻗어나간 나무와 같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쉽게  
 된 것이니,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바가 있다.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중략> 그 느린 것은 장차  
 빨리 되려는 것이요, 그 중지되는 것은 장차 끝까지 도달하  
 려는 것이니, 곧 ㉢**이지러진 것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며,**  
**부족한 것은 보태질 수 있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물건에 다가가 보더라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  
 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니, 곧 불은 건조하며 물은 습한 것이어서 물건이나 나  
 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곧 공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은 밤나무의 성장함과 같  
 으며, 밤을 수확하여 간직함은 공의 은퇴하는 것과 같다. 그  
 성장함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바가 있으며, 그 간직함  
 에는 자신의 몸을 수양하는 작용이 있다. 이에 나는 이 정  
 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설(說)을 짓는다.”라고 하였다.

- 백문보, 「울정설(栗亭說)」 -

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의인화를 사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적 배경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이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대조적인 소재를 들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7.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궁귀'와 (나)의 '모란'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 ② (가)의 '사방'과 (나)의 '외진 땅'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의미한다.
- ③ (가)의 '유신'은 대상이 화자를, (나)의 '향기'는 화자가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다.
- ④ (가)의 '하늘'과 (나)의 '농부'는 화자의 신세를 위로하는 존재이다.
- ⑤ (가)의 '므슴하리'는 체념을, (나)의 '붙이누나'는 안타까움을 내포하고 있다.

8. 좋은 꽃과 밤나무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좋은 꽃'과 '밤나무'에는 모두 작가의 관심과 애정이 담겨져 있다.
- ② '좋은 꽃'과 '밤나무'에는 모두 작가의 외로운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 ③ '좋은 꽃'과 '밤나무'에는 모두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세가 내재되어 있다.
- ④ '좋은 꽃'은 작가의 처지를, '밤나무'는 작가의 과시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좋은 꽃'은 냉소적으로, '밤나무'는 자조적으로 현실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평생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궁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③ ㉢: 동경하는 사물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구적 표현으로 사물의 성질과 운공의 삶이 유사함을 역설하고 있다.
- ⑤ ㉤: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년 고3 10월 - 탄궁가]

봄날이 더디 흘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에 따비\* 연고 서편 이웃에 호미 연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가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심었거늘  
 한아한\* 식구(食口)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죽 썬 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젖고 코로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싸리피 바랑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나라 빛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장초(莠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고  
 벼들 복도 쓸데없어 빈 벽에 걸려 있고  
 시루 솔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끼었다  
 ㉣세시(歲時) 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이하야 접대(接待)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야 여의려뇨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餞送)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추추분분(啾啾憤憤)\*하야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타이르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혁(恐嚇)\*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無情)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억지로 피하여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이 만든 이 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分)이어나 설워 무엇하리  
 -정훈, 「탄궁가」 -

\*따비: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한아한:춡고 굶주린.  
 \*싸리피 바랑이:둘 모두 잡초의 일종.  
 \*장초의 무지:시경의 한 구절로, '진털에 난 장초나무 가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남'을 뜻함.  
 \*궁귀:가난 귀신.  
 \*추추분분: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냄.  
 \*공혁:올러대어 꾸짖음.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긍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여음과 후렴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대립적 공간을 설정하여 이상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영탄법을 활용하여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1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농사를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다.
- ④ ㉣:자신의 도리를 다할 수 없다는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궁핍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12.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즐거움이 있으니 가난해도 오히려 괜찮고  
 한가로움이 많으니 병이 있어도 또한 괜찮아라  
 향불을 사르다 보니 내리던 봄비 가늘어지고  
 시구 찾다 보니 어느새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골목이 외져 길은 이끼로 덮였고  
 창문이 없어 대나무로 울타리를 삼았네  
 명예와 이익을 따르는 저 사람들 우스워라  
 세월이 다하도록 바쁘게 달리기만 하네  
 - 김효일, 「만홍」 -

- ①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계절의 순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군.
- ②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자연을 동경하고 있군.
- ③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타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군.
- ⑤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다른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가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년 고3 9월 - 탄궁가]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A]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봄날이 따뜻하여 뼈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가]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울며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चु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울며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싸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蔞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베틀 북도 쓸 데 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어 접대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많다  
 이 원수 가난귀신 어이하어 여의려뇨  
 [나]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일려냐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B]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 안표 : 안회(顔回)의 표주박. 안회는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항에 살면서도 즐거워하였음.  
 \* 원헌 : 공자의 제자로 궁핍함 속에서도 청빈하게 살았음.  
 \* 싸리피, 바랭이 : 잡초의 일종.  
 \* 장초의 무지 : 『시경』에 나오는 말. 부역으로 고통 받던 백성들이, 무지하여 근심 없는 장초 나무를 부러워하였음.

1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가]는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이, [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는 관념적인 문제를, [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 ⑤ [가]는 현실 타개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탄식이, [나]는 의인화된 대상과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1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③ ㉢:겨울이 따뜻하다고 해도 몸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으로, 겨울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가지도 부족함을 보여 준다.
  - ④ ㉣:술 시루를 방치해 두어 녹이 슬었다는 것으로,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을 형편이 아님을 보여 준다.
  - ⑤ ㉤:친척들과 손님들을 접대할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 도리를 다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염려가 반영되어 있다.

15. [A]와 [B]에 주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일정 고루 하련마는’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화자의 신념이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에 이르러서 강화되어 있군.
  - ② [A]의 ‘어찌 된 인생이’에 나타난 화자의 비관적 인생관이 ‘짜리피 바랭이’에 이르러서는 낙관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있군.
  - ③ 화자의 가난한 삶이 [A]의 ‘이다지도 괴로운고’에서는 탄식의 대상이지만 [B]의 ‘서러워해 무엇하리’에 이르러서는 체념적 수용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있군.
  -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 나타난 화자의 열등감이 [B]의 ‘설마한들 어이하리’에 이르러서는 우월감으로 극복되어 있군.
  - ⑤ ‘이 얼굴 지녀 있어’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나 [B]의 ‘빈천도 내 분수니’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년 고2 9월 - 면양정가]

(가)

㉠인간(人間)을 썬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람도 혀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노  
 아츰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나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호라  
 이 피히 안즈 보고 저 피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호 므옴의 브릴 일리 아조 업다  
 쉼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아  
 다만 호 청려장(靑藜杖)\*이 다 피되어 가노미라  
 술리 너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나  
 불늑며 특이며 혀이며 이아며 [A]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즈락  
 을프락 프람호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넓고넓고 일월(日月)도 호가호다  
 - 송순, 「면양정가(俛仰亭歌)」

(나)

|                    |       |
|--------------------|-------|
| 온갖 풀이 모두 다 뿌리 있으나  | 百草皆有根 |
| 부평초 홀로이 뿌리가 없어     | 浮萍獨無蒂 |
| 물 위를 두둥실 떠도는 신세    | 汎汎水上行 |
| 언제나 바람에 불려다니네      | 常爲風所曳 |
| 살려는 의지가 없으리요만      | 生意雖不泯 |
| 불인 목숨 진실로 작고 가늘어   | 寄命良瑣細 |
| 연잎이 너무도 업신여기고      | 蓮葉太凌藉 |
| 마름*은 줄기로 칭칭 감아 조이네 | 荇帶亦交蔽 |
| 한 연못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도 | 同生一池中 |
| 왜 이다지 몹시도 어긋나는가    | 何乃苦相戾 |

-정약용, 「고시(古詩) 7」-

\*마름: 연못이나 늪에 나는 마름과의 한해살이 풀

(다) 어느 해인가 내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집 근처에 소나무 네다섯 그루가 있었는데 키가 몇 자밖에 되지 않고 작달막했다. 나뭇가지는 아래로 드리워져 긴 것은 땅바닥에 닿고, 짧은 것은 줄기를 가릴 정도였다. 구부러지고 뒤틀려 엷힌 가지가 마치 뱀이 서리어 다투는 듯, 수레 덮개가 활짝 퍼진 듯, 오색실로 만든 술이 감기고 엷힌 듯 들쭉날쭉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놀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타고난 성질이 어찌 저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중략>

“저 소나무는 정말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구나. 자기의 선한 본성을 욕심 때문에 잃은 자들을 보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몸놀림은 약삭빠르다. 또 괴이한 행동을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아 칭찬만 받으려고 하며, 남의 비위나 맞추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이를 고상하게 여긴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이런 사람을 곧은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 비추어 본다면 어떠하겠는가? 또 굳센 호연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에 비추어 본다면 어떠하겠는가? 세상에 아첨하면서 구차하게 남의 환심이나 사려고 하는 자들과 저 작은 소나무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아아,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그 나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자신을 수양하여 본성을 기르고 해를 당하지 않으면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만물도 제 모습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 나무는 깎이고 휘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이 어찌 공자께서 ‘자신의 참모습을 잃고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죽음만 모면했을 뿐이다.’라고 한 말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아아, 그러고 보면 저 나무에게도 슬픈 일이로구나.

오래전에 숲에서 자라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본 적이 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들은 우레가 치며 비가 쏟아지는데도 우뚝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우러러 공경할 뿐 애완물처럼 어루만지면서 좋아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으니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어떤 사물을 어여뻐 여기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천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구실이 되기도 하며, 어떤 사물을 공경하는 것은 그 덕을 높이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무릇 제 본성을 해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받으려고 했던 결과요, 제 본성을 지켜 우러름을 받는 것은 자기 수양의 결과이다. ㉡군자는 이런 예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뿐이니, 저 소나무를 탓해 무엇하겠는가?”

-이식, 「왜송설(矮松說)」-

1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관조적인 자세로 사물의 속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다른 사물에 의지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 부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대조적 어휘를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17.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화자와 현실의 조화를, [B]는 화자와 현실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B]는 상황이 개선되리라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자연에서 받은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청유형 어미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반복과 열거를 통해 거리낌 없이 풍류를 즐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설의적 표현으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역설하고 있다.
- ⑤ ㉣: 본성을 지키기 위한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 (나)의 '부평초'와 (다)의 '작은 소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평초와 작은 소나무는 모두 삶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 ② 부평초와 작은 소나무는 모두 외부와의 화해를 바라고 있다.
- ③ 부평초는 갈등의 원인을 내부에서, 작은 소나무는 외부에서 찾고 있다.
- ④ 부평초는 현실의 문제에 저항적으로, 작은 소나무는 순응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⑤ 부평초는 작가의 처지가 투영된 대상이고, 작은 소나무는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은 다산이 경상도 장기로 유배된 직후 지어졌으며 시기와 질투, 모함이 끊이지 않는 조정에서 언제나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정조의 승하로 위태로운 처지가 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한 한 나라 조정에서 한 임금을 섬기며 일하건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무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① '풀'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을 나타내고 있군.
- ② '떠도는 신세'는 정조의 승하로 위태로운 처지가 된 다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바람에 불려다니네'는 정치적 수난으로 인해 제 뜻대로 살지 못하는 다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칭칭 감아 조이네'는 중상 모략하는 무리로 인해 유배된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군.
- ⑤ '몹시도 어긋나는가'를 통해 당쟁의 폐해를 비판하는 다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년 고2 11월 - 면양정가]

(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 | 안주(酒)로다.  
 이 몸이 한가(閒暇)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는 이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魚)마다 살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히 남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탁료계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  
 \*금린어: 싱싱한 물고기.  
 \*역군은이샷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다.  
 \*흘리: 흐르도록.  
 \*자히 남다: 한 자가 넘는다.  
 \*누역: 짚으로 만든 비옷.

(나) 된 서리 빠진 후의 산 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의 펼쳐져 있는가.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문혔거늘  
 조물(造物)이 야단스러워 빙설(氷雪)로 꾸며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  
 (眼底)\*의 펼쳐져 있구나.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울 업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졸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은 뉘 달으며 떨어진 꽃은 뉘 쓸려뇨.  
 아침이 낮브거니\* 저녁이라 싫겠느냐.  
 ㉤오늘이 부족(不足)하니 내일(來日)이라 유여(有餘)하  
 람.

- 송순, 「면양정가(俛仰亭歌)」-

\*만경: 아주 많은 이랑.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이르는 말.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꾸민 궁궐과 대.  
 \*옥해은산: 옥으로 된 바다와 은으로 된 산.

\*안저: 눈 아래.  
 \*낮브거니: 부족하니.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강호사시가」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화자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조화와 함께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치적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

-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화자의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군.
  - ② 각 수 종장의 ‘이 몸이 ~해움도’는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③ 각 수 종장의 ‘역군은(亦君恩)이샷다’는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지어 한 말이라 할 수 있군.
  - ④ 화자는 걱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군.
  - ⑤ 화자의 공적인 삶이 사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게 된 이유는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 때문이군.
2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검소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에 비유하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미화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대구와 설의를 활용하여 덧없이 흘러보낸 시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24~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6년 고3 6월 - 면양정가]

(가)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겼구나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안민영, 「매화사」-

\* 옥인 금차: 미인의 금비녀.  
 \* 백설 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

(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짙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  
 는 적에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영킨 적에  
 ㉣백적(白積) 난간에 긴 조으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거늘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  
 에 벌였어라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양정가」 -

\* 산람: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경궁요대: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옥해 은산: 눈 덮인 들판과 산.

(다) 아아! 덕보(德保)\*는 만사에 통달하고 명민하며, 겸손하  
 고 고아하며, 식견이 심원하고 아는 것이 정밀하였다. 특히,  
 율력(律曆)에 정통하여 그가 만든 혼천의(渾天儀) 등 여러  
 기구들은 깊이 생각하고 오래 연구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제

작한 것들이다. 애초 서양인은 땅이 둥글다는 것만 말하고  
 회전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덕보는 일찍이 지구가 한  
 번 돌면 하루가 된다고 논했는데 그 이론이 미묘하고 심오  
 하였다. 이에 관한 책을 미처 쓰지는 못했지만, 만년에 이르  
 러 지구가  
 회전한다는 사실을 더욱 자신하였다.  
 덕보를 흠모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일찍부터 과거를 단  
 념한 채 명리(名利)를 생각지 않고 조용히 집에 들어앉아 좋  
 은 향을 피우거나 거문고를 타며 지내는 것을 보고는 '덕보  
 가 담박하게 자중 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닦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가 백사(百事)를  
 두루 잘 다스리고, 문란하고 그릇된 일을 척결하며, 나라의  
 재정을 맡거나 외국에 사신으로 갈 만하며, 군대를 통솔하  
 여 나라를 방어하는 데 뛰어난 책략을 지녔다는 것을 통 알  
 지 못했다. 하지만 덕보는 자신의 재주가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한두 고을의 수령을 지낼 때에도  
 그저 관아의 장부를 잘 정리하고,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며,  
 아전들을 공손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따르게 함이 고작  
 이었다.  
 덕보는 서장관(書狀官)인 숙부를 수행하여 북경에 갔을 때,  
 유리창\*에서 옥비, 엄성, 반정균을 만났다. 이 세 사람은 모  
 두 고향이 전당(錢塘)으로 문장과 예술에 능한 선비들이었  
 고, 사귀는 이들도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덕보를 큰선비로 떠받들며 그에게 심복(心服)하였다.  
 덕보는 그들과 수만 글자의 필담을 나눴는데, 그 내용은 경  
 전의 취지, 사람에게 천명이 부여된 이치, 고금의 인물들이  
 살아간 도리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웅대하고 결  
 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마침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면  
 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번 헤어지고 나면 천고에 다시 만나지 못할 테지  
 요. 지하에서 만날 그날까지 부끄러운 일이나 없도록 합시  
 다."  
 - 박지원, 「홍덕보 묘지명(洪德保墓誌銘)」 -

\* 덕보: 홍대용(洪大容)의 자(字).  
 \* 유리창: 중국 북경의 거리 이름.

2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친화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  
 다.

25. (가)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발옹'은 매화를 완상하는 주체이다.
- ②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 ③ '아지 고절'은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 속성이다.
- ④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 ⑤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26. 옛 노래를 알리기 위해 (가)와 (나)를 소재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한다.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조출한 술상을, (나)는 가마와 피리를 소품으로 준비해야겠어요.
- ② (가)는 구슬프게, (나)는 은은하게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사용해야겠어요.
- ③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을, (나)는 사계절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④ (가)는 밤을 위주로, (나)는 낮부터 밤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⑤ (가)는 한옥의 뜰을, (나)는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 ② ㉡: 화자의 한가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풍경의 변화를 통해 적막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 ⑤ ㉤: 화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8. (가)의 ㉠과 (다)의 ㉢의 거문고 연주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과 ㉢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자신을 위해, ㉢는 타인을 위해 연주하고 있다.
- ④ ㉠은 풍류를 즐기기 위한, ㉢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⑤ ㉠은 주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는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29.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덕보'가 취한 평소의 생활 자세를 그리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비교하여 '덕보'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감탄적인 어조로써 '덕보'에 대한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 ④ '덕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뀐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예를 들어서 '덕보'의 인물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년 고2 11월 - 사우가]

(가)

바위에 섰는 솔이 능연(凜然)한\* 줄 반가온데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찌다 봄 빛을 가져 변할 줄 모르나니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이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淸高)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꽃이 무한호되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여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아니 귀(貴)고 어이리

백설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없고 대숲이 푸르려세라  
 어째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능연한: 위엄 있고 당당한.
- \*동리에: 동쪽 울타리에.
- \*번폐하고: 번거롭게 가리고, 마다하고.
- \*엄상: 된서리.
- \*한 빛: 같은 색의 빛.

(나)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닦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득박\*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 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파리 움쭙 앉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열고 돌 우는 동짓날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고독을 즐긴다.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 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웃을 뿐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장이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쏘삭쏘삭 알랑거리고, 어떤 때에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에는 공연히 뒤틀려 우악스럽게 남의 팔자리에 생채기를 내놓고 달아난다. 새 역시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믿고 와 등지를 틀고, 지쳤을 때 찾아와 쉬며 푸념하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중략)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 보고, 흔히 자기 소용 닿는 대로 가지를 쳐 가고 송두리째 베어 가곤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로 그들의 원대로 키워지고, 베어 간 재목이 혹 자기를 해칠 도끼 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는 법이 없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요, 고독의 철인\*이요, 안분지족의 현인이다.

불교의 소위 윤회설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니, 진달래가 될까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려다.

- 이양하, 「나무」-

- \*득박: 얻은 것이나 주어진 것이 적음.
- \*견인주의자: 육체적인 욕구를 의지의 힘으로 억제하려는 주의나 주장을 가진 사람.
- \*철인: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 철학자.

3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점층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작가가 광해군의 폭정에 상소하였다가 함경북도 회령에 유배되었을 때 창작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당시 정치 상황에 굴복하고 자신의 뜻을 바꾸는 속된 선비들과는 달리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고고한 정신을 드러냈다. 또한 유배지에서 힘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씩씩한 기상을 드러냈다. 작품에 사용된 소재들은 당대의 상황과 이에 따른 작가의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① ‘솔’이 ‘풍상’을 겪는 모습을 통해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시련을 겪는 작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봄 빛’은 자신의 뜻을 바꾸는 속된 선비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작가가 지니고자 하는 삶의 자세라 할 수 있군.
- ③ ‘춘광(春光)’을 마다하고 피는 ‘국화’를 ‘청고한 내 벗’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작가의 고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군.
- ④ ‘눈 속’에서 핀 ‘매화’가 눈과 ‘한 빛’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당대의 정치 현실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대’나무가 ‘백설이 잦은 날’ 부는 찬바람을 ‘청풍’이라 여기고 이를 반긴다고 표현한 것에서 작가의 씩씩한 기상을 엿볼 수 있군.

32. (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고즌 므스 일로 꿰며셔 쉬이 디고,  
 플은 어이ㅎ야 프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회썸인가 ㅎ노라.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中 제3수 -

- ① ㉠은 가변성을 지닌 존재이고, ㉡은 불변성을 지닌 존재이다.
- ② ㉠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고, ㉡은 불모성을 지닌 존재이다.
- ③ ㉠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고, ㉡은 고독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④ ㉠은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이고, ㉡은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이다.
- ⑤ ㉠은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존재이고, ㉡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존재이다.

33.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 ③ 고독을 경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 ④ 타인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 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년 고3 10월 - 사우가]

(가)  
 네는 양주(楊州) | 쏘올히여  
 디위에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기국성왕(開國聖王)이 성디(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운더\* 당금생(當今景) 잣다운더  
 성수만년(聖壽萬年)하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픈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둥(德重)하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  
 \*신도형승이샷다: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잣다운더:도성답구나.  
 \*함락이샷다:함께 즐거워하도다.

(나) 바위에 섰는 솔이 늙연(凜然)한\* 줄 반가온더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제2수>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옥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백설(白雪)이 잣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러세라  
 어째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제4수>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늙연한:위엄이 있고 당당한.  
 \*번폐하고:마다하고.  
 \*흔덕흔덕:흔들흔들.

(다)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먹을 감는 한 시간 남짓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멀리 오는 순  
 레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  
 고 시원한지! 연거푸 두 구기를 들이키매, 피로도 잊고 더위  
 도 잊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연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돌층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흡뜬 눈과 부르걸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훌쩍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한번 문 안으로 들어서매, 석련대(石蓮臺)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  
 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군데 빈 곳

없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  
 맞게 벌어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통통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  
 겠다.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간으로 구분되었고, 각 간마  
 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긋고, 능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  
 품(神品)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리라.

(중략)

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았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  
 님네들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나는 신  
 품이 아님이 없다는 것은 좀된 붓 끝이 적이 끄적거린 바로  
 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 하  
 늘 모양으로 궁륭상(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  
 록 공교하고 굉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낳아 낸 것은, 모  
 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  
 을 점령할 것이다.

굴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흰하  
 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푹푹푹푹 돌레돌레 머  
 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  
 에 싸이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  
 러낸 여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  
 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곰실곰실 움  
 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살이  
 동실동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  
 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는 나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仙  
 緣)이 있을 턱이 없다.

- 현진건, 「불국사 기행」 -

\*궁륭상: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  
 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 모양.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5.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늪연한 줄 반가온더'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 ④ (나)의 '대숲이 푸르러세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모두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네는 양주(楊州) | 소올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쟁'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 ② '신도형승이샅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겠군.

- ③ '기국성왕(開國聖王)이 성덕(聖代)를 니르어샅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 ④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성한 터임을 알려 주는군.
- ⑤ '만세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37.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8. <보기>는 (다)를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그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굴 안으로 이동한 후에는 ㉡석가상의 온화한 얼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이나,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을 읽으며 글쓴이가 부러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년 수능특강 - 사우개]

(가)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다툼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나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 귀(貴)흔 줄를 뉘 아느니  
 춘광(春光)을 번폐(煩弊)흐고\* 엄상(嚴霜)이\* 혼자 뛰니  
 어즈버 청고흔\* 내 버디 다만 넌가 흐노라  
 \*동리: 동쪽 울타리라는 뜻으로, 국화를 심은 곳을 이르는 말.  
 \*번폐 흐고: 마다하고.  
 \*엄상이: 된서리에.  
 \*청고흔: 맑고 고결한.

(다)  
 두터비 프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것넌 산(山)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썬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썬여 내똥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늘낸 널식만정 에혈\*질 번흐괘라  
 \*백송골: 송골매.  
 \*모쳐라: 마침.  
 \*에혈: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3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③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40. <보기>의 ㉠~㉣ 중, (가)와 (나)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 보 기 >

사대부들은 식물 중에서 매화·난초·국화·대나무의 고유한 속성이 군자의 고결한 정신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 이들을 사군자(四君子)라 부르며 시가의 소재로 삼았다. 그런데 사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가들을 살펴보면 ㉠사군자의 긍정적 속성 언급, ㉡사군자의 심미적 가치 예찬, ㉢사군자와 대비되는 식물 제시, ㉣사군자의 가치를 부각하는 시련의 형상화 등을 통해 사군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41. <보기>를 (가)와 (나)의 시적 상황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 저는 (다)와 관련된 과제 발표 준비를 하다가 ㉠ (다)의 화자를 일관되게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한 명의 화자로 보는 견해와, ㉡ (다)에 복수의 화자가 등장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양립하는 견해에 따르면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를 두고 각각 해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    |   |
|----|---|
| 초장 | • ㉠와 ㉡ 어느 견해를 따르든 하더라도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한 명의 화자가 거리를 두고 대상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①   |
| 중장 | • ㉠로 본다면 화자가 대상과 거리를 두고 대상이 놀라 자빠지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br>• ㉡로 본다면 화자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
| 종장 | • ㉠로 본다면 대상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대상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br>• ㉡로 본다면 화자가 자기의 장단점을 직접 거론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